

수영대회 지원·무안공항 활성화 탄력

광주 2조 2102억·전남 6조 8104억 국비 확보...대폭 늘어나
정부 내년 예산 469조6000억 국회 본회의 통과...SOC 증액

내년도 광주시 국비지원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전남도 관련 사업에는 국비 6조 8104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와 2019 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예산이 첫 반영되거나 증액됐고,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주요 인프라 구축사업(SOC)에도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3면>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광주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2조149억원보다 29건 1953억원 증액된 2조210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추경을 뺀 본예산이 2조원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9743억원보다는 2359억원(11.9%) 증가했다.

신규 사업은 78건에 838억원, 계속사업은 217건에 2조1264억원이다. 당초 정부 반영액은 2조129억원이었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해 1953억원이 증액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주형 일자리와 내년에 치러지는 수영선수권대회 예산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빗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총 사업비 1016억원) 설계용역비 10억원이 '마중물 국비'로 반영됐다.

노사 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 기반과 맞물린 광주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도 첫단추인 실시설계비 등 20억원이 반영됐다. 또 빗그린산단 내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비도 20억원이 우선 확정됐다. 수영대회의 경우 486억원을 요청해 정

부예산안에 191억원만 반영했다가 259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면서 원활한 대회 준비에 숨통이 트이기 됐다. 또 수영대회 관련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과 운영비 30억원(주변 도로개설 1억원 포함)도 함께 반영됐다.

전남도는 국비 반영액은 올해(6조16억원)보다 888억원(13.5%)이 늘었다. 전남도는 3년 연속 국비 6조원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주요 지역 인프라구축사업

(SOC)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전남도는 내년 예산 반영액 가운데 SOC 사업의 경우 1조 2121억원을 확보했다. 애초 정부안보다 50.9%가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4090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28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 단지 조성(5억원),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10억원) 사업비 등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은 한반도 아열대화에 대비해 지속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계획중인 사업이다. 반면, 광양항 낙포부

두 리뉴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분소 설립, 폐플라스틱 산업화 기술 실증 기반 구축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470조 5000억원보다 9000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SOC 예산은 1조2000억원 증액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첫 눈 내린 무등산 눈부신 눈꽃

을 겨울 들어 첫 눈이 내린 9일 오후 광주 무등산 서석대 일대에 하얀 눈꽃이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오락가락 줄타기 협상전략 바꾸고 신뢰 회복 나서야

/뉴스초점 / '광주형 일자리' 되살리려면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광주시가 합작법인의 제1투자자 및 핵심 운영주체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2투자자인 현대자동차를 붙잡고, 지역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합작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합작법인 비전·원칙 제시

市 운영주체로 제역할 해야

대한 비전과 원칙을 설정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예산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현대차와의 신뢰 회복

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광주시가 현대차와 지역노동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해서 는 설사 투자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이탈, 반목 등이 계속해서 돌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광주시의 협상 전략부터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시는 현대차에 협상을 재개할 명분을 주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이 맡았던 광주시 협

상팀을 이용섭 광주시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협상팀도 보강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주중 현대차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번 틀어진 관계를 복원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주 또는 적어도 이달 안에는 투자협약 체결에 성공해줄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윤현석 기자 chadol@ <2면에 계속>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최진석



엄홍길



김정운



박정자



전유성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 7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내년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 7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를 제

공합니다.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19년 3월~2019년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 30분 (호텔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1월 31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개별문의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광주일보

광주일보

윤창현 전 시장 입에 쏠린 눈
-네팔서 귀국 오늘 검찰 출두 ▶6면
광주 카페창업자 많은 이유
-청년·중장년 2년새 배로 늘어 ▶14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 신 대 학 교
www.kwangshin.ac.kr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이 중심인 도시!
민선7기 광주광역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민선7기 광주광역시는 **혁신·소통·청렴**으로 모든 시민들을 포용하는 열린 시정이 될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풍요가 함께하는 광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